

“안전 이상무” 광주, 민·관합동 830곳 안전점검

안전대전환 최종 보고회...16일까지 100% 완료

안전 위협 281건 즉시 시정 조치...194건 장기 관리

광주시는 8일 시청 충무시실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자치구, 공사·공단 등 23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시민이 참여한 광주안전지원단, 시민안전관찰단 등과 함께 7개 분야 830곳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이날까지 총 766곳(92.3%)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남은 64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광주시는 건물 옥상 방수층 균열, 실내 체육시설 지붕 트러스 연결부 이철, 산사태위험

지역 낙석방지 시설 훼손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281건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했다.

장기 보수·보강이 필요한 194건은 해당 관리기관에서 별도로 보수 계획을 수립,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참여 확대 ▲안전점검 전문성 강화 ▲점검 실효성 강화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중 안전점검을 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 선정에 대한 대시민 설문조사와 주민신청제를 실시하는 한편

민·관 합동 점검, 홍보 활동 등도 강화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주안전지원단과 모든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육안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점검했다.

강기정 시장은 “건축물 등 시설안전 뿐만아니라 7~8월 여름철이 다가오는 만큼 폭염·홍수·태풍 등 자연재난 취약·위험지역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각별한 관심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구도심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 도시 재생·지역공동체 형성 세미나

광주시는 8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도시 재생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발전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공유, 구도심의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학계·도시재생분야 전문가·각 자치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공무원·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귀곤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발전학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동구 재생사업의 사례와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향한 길을 모색, 지역공

동체의 발전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바란다”고 말했다.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의 지향점은 필요와 수요에 대한 단계적 대응도 실행해야 하지만 지속가능한 삶의 열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지향점”이라며 “도시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의 혁신, 도시재생의 근본적 지향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한 사례에 대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국내의 우수 사례를 분석해 지역 고유자산과 접목, 지역특화재생방안을 모색하고 광주만의 도시재생사업의 롤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접수 전남 5개 시·군 선정

전남도가 올해 ‘찾아가는 영화관’ 지원 사업 대상으로 5개 시·군을 선정한다.

이 사업은 도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산간·도서·농어촌 등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영화 상영과 마을영화 제작 등 다양한 영상 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사업 주관기관인 (사)전남영상상위위원회로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영화 상영 외에 마을영화 제작이라는 특색 있는 경험을 추가해 더욱 특별한 기회를 선물하고 있다.

마을 특산물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모델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 달력을 만들고 이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1회남도영화제’에 소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마을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SNS)에도 홍보한다.

사업 대상 마을에는 문화공연, 장수사진 촬영·역자 전달, 증명사진 촬영을 통한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은 도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영화 제작 프로그램은 도민에게 즐겁고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남영상상위위원회(061-744-2271)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51)로 문의하면 된다.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 여성 구직자들이 대거 참여해 상담을 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여성 일자리박람회 ‘성황’...400명 취업 예약

9개 시·군, 160개 기업 참여...하반기 4회 개최

전남도가 8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한 ‘2023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박람회엔 목포·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완도·진도·신안 9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다.

160개 구인 기업이 400여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된 가운데 여성 구직자 1000여명이 방문해 높은 구직열기를 확인했다.

박람회는 현장면접관·취업컨설팅관·창업지원관·박람회운영지원관·주제관 등 취업지원 상담과 제

함 등 실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박람회운영지원관에선 찾아가는 취업지원 버스,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홍보 커피트럭을 지원했다.

또 주제관에선 이직과 전직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플랫폼노동 일자리상담관을 운영하고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홍보했다.

중장년 경력 개발, 새출발 카운슬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은 변화를 꿈꾸는 중장년 여성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우수 기업은 유능한 여성 인력을 채용하는 장이 되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잇는 취업의 장으로 자리 잡은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상반기 순천·목포에 이어 하반기엔 10월18일 여수, 10월26일 나주 등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권현만 기자

김영록 지사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절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의대 정원 확대 ‘신설’ 반영 건의

김영록 지사가 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전남도내 국립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섬 등 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어 의료수요가 높은 데 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성이 담보된 지역 맞춤형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현실에 공감을 표하며 “지역 의사제 등을 포함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모 ‘전국 최다’ 선정

전남도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이사업은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임신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시설 기반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모에 전국 18곳 중 가장 많은 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시·군 기존 순천·화순·장흥·해남·신안 등 5곳에서 광양·담양·고흥·강진·장성·진도 등 6곳이 추가돼 총 11개 시·군에서 확대 추진된다.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 “K-Health 국민의료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하나, 광주 병의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투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앱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